

강가의 다리

아리타초 우치야마 지구의 큰길과 거의 평행하게 흐르는 강에는 작은 다리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. 근대까지 아리타 지역의 자기 생산에는 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, 도석을 가루로 부수는 데 사용되는 디딜방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. 에도 시대(1603~1868)에는 이 목제 장치가 100 대 이상 강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. 또한, 강물은 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흙과 유약, 물감의 원료이기도 했습니다.

사이코지 절 정면에는 작은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. 이 다리를 조금 지난 곳에는 더 오래된 아치형 돌다리가 있으며, 일부가 묻혀 있습니다. 1999 년에 이 다리는 강에서 몇 미터 북쪽에 있는 현재 위치로 옮겨졌을 때 보존되었습니다.

아리타 지역의 하천 부지에는 깨진 도자기가 흩어져 있습니다. 에도 시대에는 결함이 있는 자기는 노보리가마(산비탈에 세워진 대규모 가마)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산 중턱에 버려졌습니다. 지금도 토사 붕괴와 폭우 등으로 오랫동안 묻혀 있던 도자기 파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메이지 시대(1868~1912)에는 자기가 그대로 강에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. 지금도 마을 내의 강바닥과 강둑을 따라 화려한 자기가 묻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단, 이러한 조각은 모두 매장 문화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꺼내는(즉, 발견한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 가는)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